



문채이 중학교 3학년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날씨 이슬비 → 햇살



DIARY - SPORTS DAY

학교에서 사제동행 체육대회를 했다. 운동회를 시작할 때 회장에 비가 조금 와서 운동장에서 잔교생이 다같이 비 맞으며 체조를 했다. 불평하는 학생들도 없었지만 난 요령이 없어도 좋고 더 좋았던 것 같다. 그리고 체육대회에서는 우리반이 농구 릴레이, 8차출발계서 2등을 하고, 나머지 계주, 2인 3각, 휠라기에서는 모두 1등을 했다! 대박!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서 우리반이 체육대회 전체반에서 1등을 차지했다. 내가 참가한 8지출발계와 농구출발계는 우선반이 평소에 잘하거 못하거 중요인데도 체육대회 당일날에는 잘해서 기쁘게 축하했다. 시상식 할 때 각 학년별로 등한 반에게는 텀고, 패배기, 유공수첩, 2등한 반은 텀고, 유공수첩, 3등한 반은 텀고만 받았다. 그런데 이미 메달을 받은 것인데도 학교 휴식 가는 길에 바닥 곳곳에 학생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려뒀다. 얼마 우리반은 아니겠지 아들이? ^^, 등, 일단 주를 수 있는 쓰레기를 양손 가득 주워서 길 옆 분리수거장에 분리수거하여 버렸다. 내가 쓰레기를 주워서 환경보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 하니까, 그 많은 쓰레기들을 모두 가져 무척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이게 좋다고 환경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학교 근처에서 쓰레기를 주를 하면 꼭 이상한 시선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난 이런 불운을 할 때 이상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기로 하였다. 내가 하는 일이 좋은 것인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이 쓰레기를 우리 학교 잔디밭이 곁에 버리고 쓰러진 시일이 너무 안타깝고 이 세상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생각을 바꾸 권할 때이다. 마음을 개고, 실천도 해야겠다.

↳ 운동회 마치고 집 가는 길에 주운 쓰레기들

DIARY - Donation

나는 환경보호에 대해 특이하게 동물들이 너무 안타까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매년 내 생크레디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에 기부하고 있다. 나는 정말 내가 보고 싶은 것까지도 안 사고 싶지만 멸종위기 동물들은 당장 환경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내가 기부하고 싶은 단체인 UNEP는 UN 산하 환경보호 활동가로 멸종위기 동물들과 서식지 보전 사업에 참여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해양보호, 기후변화 대응 등과 관련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이다.

후원자님 덕분에 빛날 수 있었던
2024년의 눈부신 순간들을 확인해
주세요!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이 전세계
137개국 현장에 어끌 희망을 전했는지,
연례보고서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The Earth doesn't cry out for help.
But slowly and surely, it's dying in silence.
By the time we start to feel it,
it may be too late."
"지구는 도움을 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천천히, 확실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 시작했을 때,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 UN 한국부에서 받은 실제 메세지

↳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멸종위기 동물들이란 합니다!!

코끼리(아시아, 아프리카, 자이언트), 호랑이(벵골, 시베리아), 표범(표, 아라비아), 고릴라(산악, 서부저지대), 캥거루, 오리양탄(보르비오, 수마트라), 히마, 코발스(흰, 검은, 자바, 수마트라), 갈라파고스 바다사자, 몽크바다표범, 청고래, 북극곰, 근방은판다, 마운틴다피어, 밍크고래, 슬로크리스두더지나무늘보원숭이, 황새, 따오기, 알바트로스, 왕독수리, 불은뱀, 케이앵구, 홍학, 검은수리, 가마귀지, 유리딱따구리, 바다개복(푸른, 붉은, 매부리), 고래상어, 만타고리, 캄다랑어, 벨류기질상어, 해마, 산호, 아귀류, 코모도왕도마뱀, 자바스슴머리, 갈라파고스쇠귀개복, 양서류맹꽂이, 유리뱀, 금개구리, 악어(산, 오리노코), 모나크나비, 청정잠자리, 장수강늘소, 북극곰, 희귀 반조류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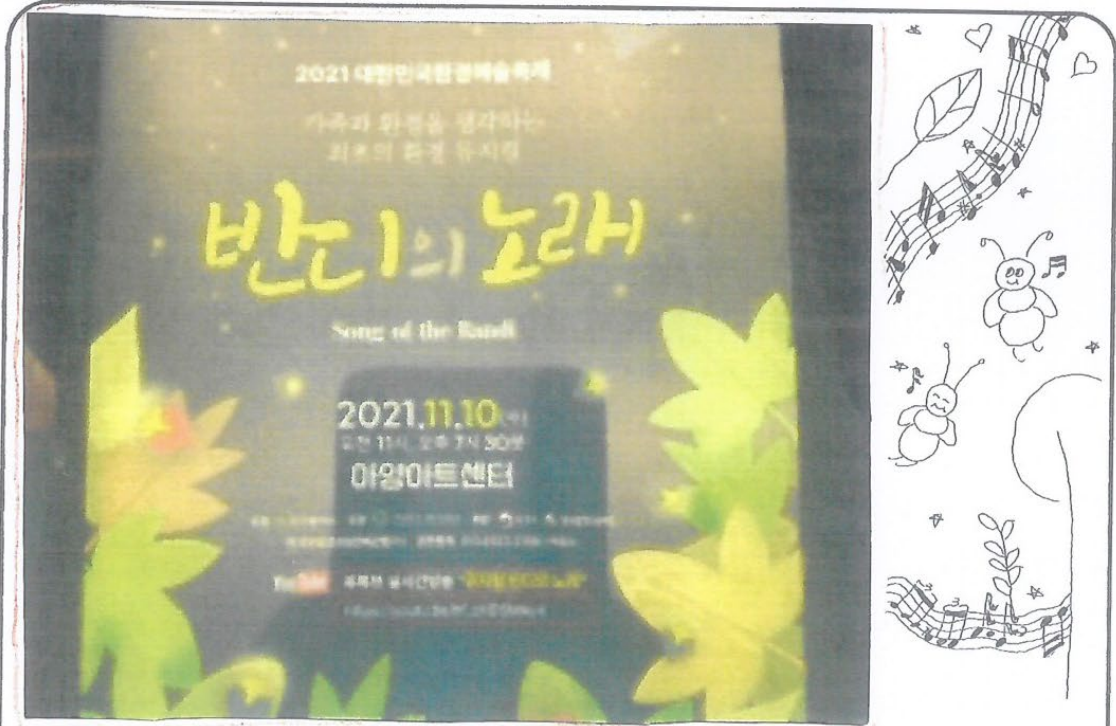




문채이 중학교 3학년

2025년 5월 30일 월요일 ^{~예전 이야기...~} (☺)

날씨 ☁️ 조금 더운 날



☺️ 출연했던 뮤지컬 책자

DIARY - MUSICAL 🎵

나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배웠다. 그래서 뮤지컬을 할 기회가 생겼는데 '환경' 뮤지컬이기에 너무 기쁘다고 하였다. 2021년에 한 뮤지컬인데 벌써 3~4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억이 생생하다. 그 당시에는 내가 이 환경뮤지컬에서 노래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게 좋았다. 뮤지컬 내용은 반딧불이 나라에 인간들이 만든 폐수마왕과 공해마왕이 찾아와서 내용 속 나 + 나의 친구 + 인과 친구가 함께 물리쳐서 소중한 우리의 자연을 다시 찾게 되는 내용이다. 반딧불이인 나는 인생 처음 초록색 스타킹도 신고 날개도 달고 더듬이 붙잡고 해서 정말 반딧불이가 된 기분이었다. 반딧불이는 아마 멸종위기종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반딧불이를 연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일제로 반딧불이는 IUCN 취약, 위기 등급으로 심각한 상태이다. 뮤지컬을 연습하고, 무대에 오르면 즐거운 추억도 있고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

☺️ "자연을 사랑하면 자연은 벌이 되어 세상을 감싸만지 아픈 나무 다시 웃게 되고 시들어가는 꽃 다시 피어"

☺️ "깨끗할거야 세상은 눈부시게 우리의 마음처럼 하늘이 눈처럼"

☺️ "푸른 나무 곱푸른 내비 깨끗한 하늘 우리들의 초록색 꿈은 이루어질거야"

☺️ "내가 꼭 약속할게! 내가 꼭 초록세상을 지킬게!
내 친구 반딧불이를 위해!"

- 뮤지컬 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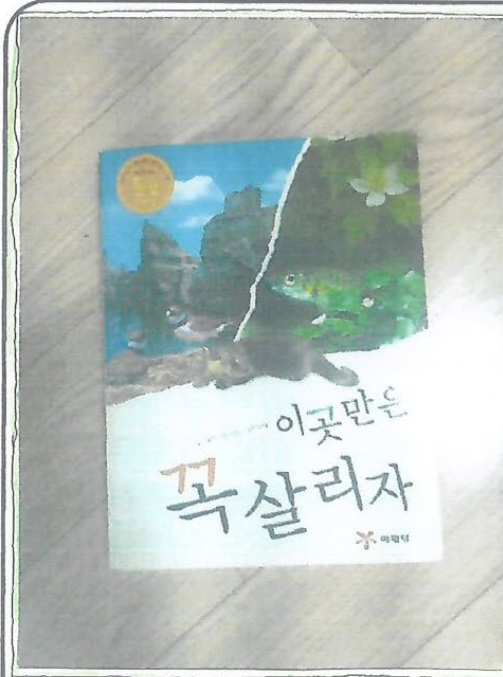




문채이 중학교 3학년

2025년 7월 20일 일요일

날씨 ☀️ 큰 비 올 것 같다!



ENVIRONMENT DIARY - 이곳만은 꼭 살리자

책 '이곳만은 꼭 살리자'를 읽어보았다. 우리나라의 여러 자연 생태를 소개하는 책인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자연환경이 있다는 게 신기했다.

가장 신기했던 장소는 경상남도 밀양군 산내면 남평리 재약산의 밀양 얼음골이다. 천연기념물 제 224호인데, 이 밀양 얼음골은 한여름에도 물이 흐르고, 고드름이 생긴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 겨울에 수직암벽을 뒤흔든 얼음이 지하암반을 타고 내려가 얼음골에 오면 여름이 되어 여름에도 얼어있는 것이다. 또 겨울에는 약 45m로 쌓인 돌이 단열재 역할을 해서 굴에 들어갈 때 여름에는 긴 팔을, 겨울에는 반팔을 입어야 한다고 한다. 여름에 고드름이라...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이다! 한여름에 이쁜 색깔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주변이 훼손되어버린다고 한다. 나는 자연현상을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이 자연을 위해서 신경쓰는 게 더 훌륭한 자세라고 느꼈다.

◀️ 읽은 책 '이곳만은 꼭 살리자'

다음으로 인상 깊었던 건 낙동강 하구 을숙도이다. 낙동강 근처는 평소에도 겁과 가까워서 자주 나들이 가는 장소라 더 와닿았던 부분이다. 낙동강은 한국에서 2번째로 긴 강으로 530km의 길이이고 부산 대대포를 지나 대한해협으로 빠져서 바다와 만난다. 이렇게 물이 흐르며 만년 동안 쌓여온 강을 거처 할새들이 안식처가 되었다. 할새 뿐만 아니라 오리, 기러기, 고니, 두루미, 독수리, 사슴, 가마우지 등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조류들도 찾아온다. 1966년 천연기념물 제 119호로 지정되었고 새들의 휴식처인 초습지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을숙도도 천연기념물 지정 당시에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었고 관찰원 조류가 100종이 넘었는데 현재는 수질오염, 갈대숲 파괴로 점점 가지를 잃어가는 중이다. 현대 동양 최대의 할새 도래지였으며 한국 조류 73%가 살았던 낙동강이 다시 생태를 회복하면 좋겠다.

'이곳만은 꼭 살리자'를 읽으며 일단, 한국에 이렇게 많은, 신기한 자연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산업화의 과정에서 갯벌을 매워 공장을 짓고, 시설을 건설하느라 산림을 없애고, 논과 하천을 매워 아파트를 지냈을거라는 생각이 마음이 아팠다. 물론 개발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모르고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는 것 같다. 전에 내가 참여했던 뮤지컬의 개사 중 "이 시간 소리 없는 생명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순간 기약없는 그 시절이 그리운가요. 자연과 함께했던 그 시간" 이 부분이 생각났다. 이 험박한 위기 속 우리나라의 신비한 자연을 보며 신기하지만 절대 건들지 말아야 한다. 이런 곳들이 파괴되는 원인 대부분은 관광객들이다. 하루빨리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반드시 지키고 살려야 한다는 걸 느꼈으면 하는 바이다.





문채이 중학교 3학년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날씨 ☁️ 기온 사이 햇살



লেখ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디지털소통팀 보도자료를 읽고 느낀점

또한 연간 800,000만 톤의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데, 전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중 약 절반 이상이 실패물을 쓰레기라고 한다. 이러한 결과를 듣고 머뭇거리며 정말 아니다. 플라스틱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정작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려는 노력은 한 톨도 보이지 않는다. 쓰레기를 잘 줌, 분리기를 잘쓰는 나쁜 습관이 아닌 쓰레기를, 알뜰생활을 잘 시켜줘야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해양쓰레기법이 쓰레기들은 주로 아시아, 브라질, 유럽 등에서 비롯되는 쓰레기는 전체 해양 쓰레기의 약 90% 이상이 유입되고 있다. 쓰레기(특히 플라스틱)가 해양 생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해양쓰레기 법제에 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또한 해양 생물들이 플라스틱 등이 쓰레기들을 먹이로 착각해 소화장애, 영양결핍, 사망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기복이, 새, 해양포유류 등 큰 먹이사슬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들이 알뜰생활을 잘 하지, 익사 시키는 습관이 보호되고 있다. 이렇게 인공물이 내뿜는 쓰레기 때문에 죽어가는 해양생물들이 산다. 또한 해양쓰레기들이 바다를 더럽혀서 해양쓰레기들이 바다 생물을, 바다 생태계를 더럽혀서 우리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해양쓰레기는 먹이사슬과 함께 해양 생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매개체인 것이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과 비교하여 훨씬 작아 해양 생물들이 섭취할 수 있다. 이는 기복영양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또한 플라스틱이 많은 종류가 다른 해양지역으로 유입되어 침입종이 되어 토착종을 위협하는, 외래종 확산 및 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된다. 내 해양쓰레기 디지털소통팀의 보도자료를 읽고서 해양쓰레기가 바다 생물을, 바다 생태계를 더럽혀서 우리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해양쓰레기는 먹이사슬과 함께 해양 생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매개체인 것이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과 비교하여 훨씬 작아 해양 생물들이 섭취할 수 있다. 이는 기복영양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또한 플라스틱이 많은 종류가 다른 해양지역으로 유입되어 침입종이 되어 토착종을 위협하는, 외래종 확산 및 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된다. 내 해양쓰레기 디지털소통팀의 보도자료를 읽고서 해양쓰레기가 바다 생물을, 바다 생태계를 더럽혀서 우리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해양쓰레기는 먹이사슬과 함께 해양 생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매개체인 것이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과 비교하여 훨씬 작아 해양 생물들이 섭취할 수 있다. 이는 기복영양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또한 플라스틱이 많은 종류가 다른 해양지역으로 유입되어 침입종이 되어 토착종을 위협하는, 외래종 확산 및 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된다.

우리가 만들어낸 쓰레기는 과연 어디로 갈까. 한국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보고 정말 마음이 아프다. '환경오염'이라는 단어를 듣고 장차 쓰레기 문제가 대해 생각해본 적은 없었는데 정말 심각하다. 한국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읽고 우리가 사용한 쓰레기를 언제 자연이 회복받는다든 할 때 한 번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그 중 가장 인상깊게 본 자료는 해양 쓰레기법에 관한 내용이다. 쓰레기법이란 바다 위를 순회하는 해양쓰레기법 관련법이다. 'plastic soup'으로 불리며, 북대서양 회양곡(North Atlantic Subtropical Gyre) 근처에 플라스틱이 모여있는 회양곡으로(캘리포니아 해류, 쿠르시 해류 등) 형성된다. 또한 요즘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쓰레기법은 'Great Pacific Garbage Patch'라 불리는 Great Pacific Garbage Patch이다. 이 쓰레기 패치 지역 크기는 약 160만 km²로, 이는 텍사스의 약 4배 면적이고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 세 개국 면적을 합한 것보다 넓은 방대한 쓰레기 덩어리이다. 무려 약 80,000만(80,000~100,000MT)의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약 13조개 조각이라고 한다.



লেখক: 해양수산부

이제는 방관할 수 없습니다. 해양 생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방관할 수 없습니다. 해양 생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해양쓰레기법이 쓰레기들은 주로 아시아, 브라질, 유럽 등에서 비롯되는 쓰레기는 전체 해양 쓰레기의 약 90% 이상이 유입되고 있다. 쓰레기(특히 플라스틱)가 해양 생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해양쓰레기 법제에 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또한 해양 생물들이 플라스틱 등이 쓰레기들을 먹이로 착각해 소화장애, 영양결핍, 사망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기복이, 새, 해양포유류 등 큰 먹이사슬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들이 알뜰생활을 잘 하지, 익사 시키는 습관이 보호되고 있다. 이렇게 인공물이 내뿜는 쓰레기 때문에 죽어가는 해양생물들이 산다. 또한 해양쓰레기들이 바다를 더럽혀서 해양쓰레기들이 바다 생물을, 바다 생태계를 더럽혀서 우리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해양쓰레기는 먹이사슬과 함께 해양 생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매개체인 것이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과 비교하여 훨씬 작아 해양 생물들이 섭취할 수 있다. 이는 기복영양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또한 플라스틱이 많은 종류가 다른 해양지역으로 유입되어 침입종이 되어 토착종을 위협하는, 외래종 확산 및 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된다. 내 해양쓰레기 디지털소통팀의 보도자료를 읽고서 해양쓰레기가 바다 생물을, 바다 생태계를 더럽혀서 우리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해양쓰레기는 먹이사슬과 함께 해양 생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매개체인 것이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과 비교하여 훨씬 작아 해양 생물들이 섭취할 수 있다. 이는 기복영양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또한 플라스틱이 많은 종류가 다른 해양지역으로 유입되어 침입종이 되어 토착종을 위협하는, 외래종 확산 및 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된다.

이제그린터크 제 119호 보도자료를 읽고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기후변화로 인해 2100년 즈음에는 해양생물의 84%가 멸종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국립 생태 복원 센터의 연구자들은 지난 9월 과학 분야 저널인 'PLoS ONE'에 연구결과를 기술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붕괴되고 전세계적으로 약 2만 1000여 종의 해양 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이코그린터크 보도자료를 읽고서 해마다 사람들이 모두 미래의 일이라고, 환경은 보호할 필요, 문제를 피하겠다는 생각에 귀찮았다. 해양쓰레기법은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문제를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전세계 해양 쓰레기법이다. 해양쓰레기법은 플라스틱의 회양곡 특성을 이용해 쓰고, 해발과 파도에 조각으로 분해되는 특성 등이 주목을 끌었다. 알뜰생활을 잘 하면 전세계 해양쓰레기 약 90%가 이러한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91%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한다. 해양쓰레기법은 해양쓰레기법은 약 50% 이상이 분해 플라스틱을 섭취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북대서양회양곡(북해류)(Northern Fulmer), 해발 해역 96%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 새끼를 위해 플라스틱으로 인한 헛터들이 발견되어 새끼를 낳지 못하고 산모는 죽는다. 특히(Phaenaceros), 약 91.5% 이상의 새끼새끼를 낳지 못한다. 알뜰생활을 잘 하면 전세계 해양쓰레기 약 90%가 이러한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91%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한다. 해양쓰레기법은 해양쓰레기법은 약 50% 이상이 분해 플라스틱을 섭취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북대서양회양곡(북해류)(Northern Fulmer), 해발 해역 96%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 새끼를 위해 플라스틱으로 인한 헛터들이 발견되어 새끼를 낳지 못하고 산모는 죽는다. 특히(Phaenaceros), 약 91.5% 이상의 새끼새끼를 낳지 못한다. 알뜰생활을 잘 하면 전세계 해양쓰레기 약 90%가 이러한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91%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한다. 해양쓰레기법은 해양쓰레기법은 약 50% 이상이 분해 플라스틱을 섭취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북대서양회양곡(북해류)(Northern Fulmer), 해발 해역 96%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 새끼를 위해 플라스틱으로 인한 헛터들이 발견되어 새끼를 낳지 못하고 산모는 죽는다. 특히(Phaenaceros), 약 91.5% 이상의 새끼새끼를 낳지 못한다.



해양쓰레기법은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문제를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전세계 해양 쓰레기법이다. 해양쓰레기법은 플라스틱의 회양곡 특성을 이용해 쓰고, 해발과 파도에 조각으로 분해되는 특성 등이 주목을 끌었다. 알뜰생활을 잘 하면 전세계 해양쓰레기 약 90%가 이러한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91%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한다. 해양쓰레기법은 해양쓰레기법은 약 50% 이상이 분해 플라스틱을 섭취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북대서양회양곡(북해류)(Northern Fulmer), 해발 해역 96%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 새끼를 위해 플라스틱으로 인한 헛터들이 발견되어 새끼를 낳지 못하고 산모는 죽는다. 특히(Phaenaceros), 약 91.5% 이상의 새끼새끼를 낳지 못한다. 알뜰생활을 잘 하면 전세계 해양쓰레기 약 90%가 이러한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91%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한다. 해양쓰레기법은 해양쓰레기법은 약 50% 이상이 분해 플라스틱을 섭취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북대서양회양곡(북해류)(Northern Fulmer), 해발 해역 96%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 새끼를 위해 플라스틱으로 인한 헛터들이 발견되어 새끼를 낳지 못하고 산모는 죽는다. 특히(Phaenaceros), 약 91.5% 이상의 새끼새끼를 낳지 못한다.



문채이 중학교 3학년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날씨 ☀️ 무더운 날



↳ 최근 보게 된 환경관련 영상자료들

↳ 북극곰은 내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죄 없는 동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나라도 지구를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SAVE THE EARTH 

please save the earth.
Innocent creatures are getting hurt and die.
We can save even one more life.
please save the earth as soon as possible.



↳ 얼마전 구입한 스티폼 빨대

DIARY - ENVIRONMENT LIFE

나는 어릴 때부터 환경문제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었다. 텔레비전에서 북극곰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며 인간들이 만든 지구온난화 때문에 죄 없는 동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정말 마음이 아팠다. 환경관련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며 환경문제가 더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의 문제로 다가온 것이라곤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찾아보았고 뉴스에서 멸종된 동물들에 관한 기사를 볼 때마다 뉴스에서는 피해사례가 숫자지만 표현이지만 인간들 때문에 동물들이 죽어간다는 건 숫자만으로는 표현이 안되는 아픔이라 느껴졌다. 그래서 이런 나의 행동이 환경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곤는 않지만 동네 쓰레기통을 주위러 다닌 적도 많고, 여름에도 집에서 에어컨은 절대 듣지 않으며 초등학교 6년 내내 급식을 남긴 적이 하루도 없다. 이 행동들이 환경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 말고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것들부터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환경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닐까? 자연의 재생능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딱틀리에게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모두가 살아간다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나는 앞으로 끝까지 지구환경을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려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또 얼마전에는 사용하고 버리지 않게 스티폼 빨대를 샀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를 줄이는 것도 환경보호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 여러 음료수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보다 친환경적인 종이빨대로 바뀌어서 기쁘다.

여러 기업들이 앞으로도 환경문제에 힘쓰고 각각 개인들이 지구를 지키려는 노력했으면 좋겠다.





문채이 중학교 3학년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날씨 ☀ 무더운 날



출처: NAVER

☞ 영화 아바타 (환경 관련)

ENVIRONMENT DIARY - MOVIE

오늘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를 봤다. 일단 아바타인 나비족은 판도라 행성의 원주민인데 모든 생명체가 거대한 생명 네트워킹으로 연결된다고 믿는다. 그 중심의 '에이와'는 생명 에너지 총체가 있는데 나는 아바타가 에이와와 공감하는 장면을 보며 실제 지구 생태계의 생태계 균형이 유지된다는 게 생각났다. 아바타 중심내용은 인간들이 나비족을 내몰아 '인접타움'이라는 자원을 채굴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는 실제로 우리 인간들이 자연이 원래 살던 4억년 동식물들을 내몰고 곳에서 무분별하게 석유를 개발하고, 열대우림 벌목하는 모습과 겹쳐 보였다. 또 나비족의 신성한 나무인 '혼드루나무'가 파괴되는 걸 보며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자연이 인간에 의해 파괴되고 잃어버리는' 생각이 들었다. 나비족들은 세상을 할 때도 자연의 순환을 존중해 동물을 죽인다면 기도를 바치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하지만 자연에 눈이 먼 인간들은 큰 기계들과 군사력으로 판도라를 파괴한다. 영화에서 나비족이 사는

'판도라'라는 곳은 푸른 숲, 빛나는 식물, 다양한 생명체가 있는 곳으로 실제 우리 주변의 자연도 각자의 가치를 지닌 아름다운 곳인데 사람들이 실제 우리 주변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영화에서 나비족은 하늘을 나는 '이크란'을 타고, 인간은 큰 전투기에 탄다. 이 장면을 보며 현실에서도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하지 않고 미키 아바타의 나비족처럼 자연과 공존한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또 나비족은 '혼드루나무'를 단순한 나무도 여기지 않고 혼드루나무는 판도라의 중심이자 나비족의 문화적, 정신적, 생태적으 의미가 되는 나무이다. 나비족이 혼드루나무와 연결되는 장면을 보며 우리도 우리 주변 숲 나무 등을 단순한 한 식물이 아니라 여러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출처: NAVER

☞ 영화 아바타 중

영화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은 환경영웅이라고 한다. 나도 영화를 보며 자연스럽게 판도라 = 지구 / 인접타움 = 석유, 광물 자원 / 숲, 혼드루나무 = 자연 / 나비족, 이크란 = 동식물들에 비유하여 보고 있었다. 영화 절정에서 인간들이 판도라를 침략했을 때 차마 판도라를 파괴하고 나비족을 죽이지 못해 나비족을 잃는 사람들도 감동적이었고 인간들과 나비족들이 전쟁할 때 심장이 풀렸었다. 😊 영화 '아바타' 유명한지간 처음 본 영화이다. 영화 속 은은하게 환경문 제와 생태적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더 재미있었고 2편도 나중에 꼭 봐야겠다!

AVATAR

Save the Earth ♡





문채이 중학교 3학년

2025년 8월 23일 토요일

날씨 ☀️: 덥지만 어제보다는 시원.



이면지를 사용하는 모습

ENVIRONMENT DIARY - efforts for our Earth

정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가, 정부가, 개개인의 노력해야만 가능해진다. 나는 개개인의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노력한다고 지구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실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나는 환경부터리 지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 작은 노력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 것 같다.



우유곽을 씻어서 만드는 우리집

나

- [환경을 위한 나의 작은 실천들]
1. 일회용 물병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2. 식당에서 포장할 때 냅킨 챙겨가기
 3. 샤워 시간 줄이기
 4.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줍기
 5. 번거로운 패스트푸드 줄이기
 6. 환경보호 등차리기
 7. 바다에서 하는 줍김투기 참여
 8. 에코백 대신 선종기 사용
 9. 양지할 때 썬 사용
 10. 대중교통 이용
 11. 대나무휴지, 쟈스 사용
 12. 환경보호 단체에 기부
 13. 스웨덴 빨대 사용
 14. 환경보호 유지권 참여

Tip!) 우유곽은 종이와 비닐코팅으로 이뤄져 있다. 그래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분리수거하면 코팅을 벗겨내고 안쪽 종이를 다시 재봉지로 만들 수 있다. 우유곽에 음식물이 묻어있으면 재활용 공장에서 내려지고 다른 재활용품까지 동시에 내려지기에 깨끗하게 씻고 말리는 게 중요하다. 우유곽 11개를 재활용하면 16년 소나무 12주와 같은 양의 절약효과가 있다. 이렇게 깨끗한 것만 만들면 휴지와 노른 씨 나뭇잎 베는 것보다 사용량이 줄일 수 있다.

지구는 인간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구의 당신들을 함부로 할 권리가 없고 우리는 단지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이 집을 부수려고 떠난다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전등하나 끄는 것 텀블러를 드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고인 우리가 미래를 선택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